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및 북송경험이 탈북 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 BPSI-NKR을 중심으로

정 유 진[†]

최 빛 내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기간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분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BPSI-NKR을 사용하여 하나원 입소 후와 수료직후의 검사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제 3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 가족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기까지 1년 미만 소요된 집단(n=153)과 7년이상(n=201) 소요된 집단(단기-장기)으로 나누어 심리적 안정성 회복 정도를 살펴봤을 때 PTSD,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음주문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1년이내의 국내에 입국한 집단에 비해 입국까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 집단이 심리적 증상 회복력이 더 높음을 보였다. 북송 경험 유무가 심리적 증상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북송경험과 체류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 3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이탈주민의 심리 증상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3국에서의 직업, 거주지, 개인경험 등에 의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제어 : 탈북여성,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 외상, 북송, 심리적 증상, BPSI-NKR

[†] 교신저자: 정유진,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E-mail: karma-long@hanmail.net

북한에서 탈북을 결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국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북한을 떠나야 하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로 강을 건너기도 한다. 한국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도 인신매매나 북송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오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제3국에 체류한 사람들도 신분의 보장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가지고 온 돈을 약탈당하거나 성폭행과 인신매매, 동행한 탈북자들로 인한 구타와 대인관계 내 갈등,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질병과 피로감, 공안에 체포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불안감 등의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 입국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국내에서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한족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체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동양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듯이, 중국의 농촌 총각들이 북한의 여성을 인신매매로 사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남성이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장마당을 통해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가진 여성들은 탈북을 통해 수입활동을 하여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쳐 주기 위해 국경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안, 편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처음 북한을 떠나오는 이유는 다들 다르지만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느껴지는 심리적 불편감은 공통되게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국내 적응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탈북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외상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북여성이 조선족이나 한족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때, 신변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금 및 구속이라는 자유가 박탈되는 경험,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자녀 출산에 대한 압박, 농사일과 가사일 등으로 인한 심한 노동 등의 인권유린과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탈북 여성들의 동거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공안에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하며, 자신의 신분을 오로지 동거남에게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감시가 약해져서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북에 두고 온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자녀의 죽음이나 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착한 한족 동거남의 동의로 북에 있는 자녀들도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자유를 잃은 채 숨어 살아야 해서 한족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행을 결정하기도 한다.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 파탄자 등에게 팔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탈북자에 대한 국제 이슈화와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자녀와 생이별을 하고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탈북 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 돈이 많은 집으로 팔려 간 경우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생활하지만, 집밖을 조금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빼고는 북송에 대한 불안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공안의 긴밀한 소통으로 인해서 같은 마을에 생활하던 탈북 여성이 북송을 당하게 되면 모두 잡혀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을 경험하게 되면, 끔찍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온종일 노동을 하기도 하며, 벌거벗긴 채 쇠꼬챙이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정신교육을 수차례 받는 통에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도움을 받았던 탈북자의 이름을 모조리 대는 것도 모자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말해야 자신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유의 박탈과 안전의 욕구가 사라진 상태는 탈북 여성의 심리상태에 위협적인 경험이다.

탈북의 경험은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고 불법 체류로 인한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갖게 한다. 부적응 상태가 만성화되면 심각한 심리장애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 여성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하거나 어느 정도의 수입을 마련한 후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도 하나,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사상의식이 투철했던 사람들도 탈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고위층에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도 북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렇듯 북한에서의

삶의 어려움만이 탈북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탈북기간이 주는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 개입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국내 입국 전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탈북하기 전 북한 거주 당시에 사상성을 의심받거나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PTSD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우택, 2004). 또한,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56%가 PTSD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Lee, Lee, Chun, Lee, & Yoon, 2001), 이 외에도 북송에 대한 두려움, 공안에 체포, 북송되어 교화소에 갇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외상을 경험하고 있다. 공안을 가장한 단속꾼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한 가정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아예 탈북 여성을 납치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탈북 여성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이 된다(백영옥, 2002). 이러한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고통을 느끼며 체념과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 속에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김영자, 2000). 이렇게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탈북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응의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강차연, 2005). 북한 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수없이 경험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북한탈출, 제 3국 체류, 그리고 남한 입국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외상 경험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통은 심리적 후유증으로 남아 약 29.5%에서 PTSD로 나타나고 있다(홍창형, 2005).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는 83.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강성록, 2000). 또한 북한 이탈주민이 탈출하거나 제 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국경 수비대나 중국 공간에 체포되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경우 북한의 사회안전원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이나 구타, 강탈, 구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거나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조상혁, 2002).

우울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이 흔히 겪는 정신 장애로서 이들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한인영(2001)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신건강상태 검사에서 대상자의 29% 이상이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외상의 영향력은 정착 기간과 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있다. Silove, Sinnerbrink, Field, Manicavasagar, & Steel(1997)는 40명의 오스트리아 피난처 방문자 대상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주 전 외상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반면에 우울은 외로움, 권태와 같은 피난처에서의 스트레스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영아(2005)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탈북 과정에서 외상을 많이 경험했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기관에 입소하여 지내게 되는데 그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이나 불안, 피해

의식과 의심 등으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다(김희경, 오수성, 2010). 그 중 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우울, 불안, 적대감, 정신증 수준이 높았으며, 이 중 적대감은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쉽게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빛내, 김희경, 2011).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가족 문제이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입국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은 가족을 북한에 남겨둔 채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한다. 그러나 더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함께 탈출한 가족이 죽거나 북한 또는 중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피해소식을 듣는 경우이다. 본인은 남한사회에 있으면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깊은 절망, 죄의식에 빠져들며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탈주민에게 있어 가족이란 북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이자 생사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손실도 크지만 심리적 정신적 지지대를 상실하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조원선, 2006). 그러나 가족과의 동거는 일종의 지지망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김연희, 2006; 이경희, 배성우, 2006;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동반 여부에 따른 정신 건강 차이가 상충되고 있다(김현아, 전명남, 2003;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국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재남 북한이

탈주민을 중심으로 한 탈북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과 남한 내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 입국하는 탈북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 체류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 여성들의 심리상태에는 재중 생활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주자들이 제 3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와 정신건강상의 문제이다. 이주자들이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미래의 적응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이주하게 되는 과정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목숨을 건 위험한 경험이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의 국외에 체류하면서는 기본적인 생존 위협 속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한인영, 2001). 북한 이탈주민은 심리적 충격의 강도가 큰 생활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선행연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 흔히 경험하는 외상 사건을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강성록, 2000; 박철옥, 2007; 서주연, 2006; 유정자, 2006; 이숙영, 2005). 그러나 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개인차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수많은 경험들은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는 그들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제 3국의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심리적 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손의정(2010)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복합 PTSD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응 관련 변수로 탈북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간은 0~2년에 증상이 나타나서 3~5년 사이에 완화되었다가 6~8년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12~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Carlson과 Rosser-Hogan(1993)은 캄보디아 난민들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86%가 PTSD 진단 기준에 맞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난민으로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인영(2001)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자들이 제 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 3국에서의 학대 등 심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교육을 받았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중 54.6%가 남한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다시 북으로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남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때로는 북송에 대한 공포를 항상 지니고 지내왔기 때문에 제 3국 체류 기간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는 이후 이들이 국내에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로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해 개입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걸린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회복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세워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1. 탈북기간은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탈북기간(단기-장기)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회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북송경험 유무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회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1년간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탈북 여성으로, 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하여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대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생활하였다. 분석을 위한 설문은 하나원에 입소한 직후와 12주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앞두고 실시하였다. 입소 당시(사전) 대상자는 615명이었으나(총 대상자는 636명이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자) 수료식을 앞두고 진행했을때(사후)는 12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로 조기 퇴소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한 탈락자로 인해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416명(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자)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5.34세(SD=10.3)였으며, 20대는 223명(36.3%), 30대 171명(27.8%), 40대 155명(25.2%), 50대 이상 64명(10.4%)이었다. 학력수준은 무학 8명(1.3%), 인민학교 졸업 49명(8.0%), 고등중학교 졸업 456명(74.2%), 전문학교 졸업 45명(7.4%), 대학교 졸업 이상 28명(4.6%)이었다.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

국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범위는 최소 2달에서 최대 16년 9개월 가량이었고, 평균 5년 6개월(SD=5.2)이 소요되었다. 0~2년은 212명(34.5%), 3~5년 106명(17.2%), 6~8년 116명(18.9%), 9~11년 52명(8.5%), 12년 이상 125명(20.3%), 무응답이 4명(0.7%)이었다. 이들이 탈북하기 전 가정형편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290명(47.2%), ‘그저 그런 편이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241명(39.2%), ‘잘 지내는 편이었다’라는 사람이 44명(7.2%), 무응답 40명(6.4%)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1

특성	구분	빈도	%
연령	20대	233	36.4
	30대	171	27.8
	40대	155	25.3
	50대 이상	64	10.5
학력	무학	8	1.8
	인민학교	49	9.0
	고등중학교	456	75.2
	전문학교	45	8.4
가정형편	대학 이상	28	5.6
	어려움	290	47.2
	보통	241	39.2
	잘 지냄	44	7.2
국내입국 까지 걸린 시간	무응답	40	6.4
	0 ~ 2년	212	34.4
	3 ~ 5년	106	17.2
	6 ~ 8년	116	18.9
	9 ~ 11년	52	8.5
	12년 이상	125	20.3
	무응답	4	0.7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과정에서 북송, 외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0~2

년 소요된 사람 중 북송을 경험한 사람은 10명(4.7%),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88명(41.5%), 3~5년은 북송경험은 9명(8.5%), 외상경험은 39명(36.8%), 6~8년은 북송경험 23명(19.8%), 외상경험 51명(44.0%), 9~11년은 북송경험 17명(32.7%), 외상경험 27명(51.9%), 12년 이상은 북송경험 50명(40.0%), 외상경험 76명(60.8%)이 있었다.

표2. 인구통계학적 특성-2

기간	빈도(%)	무. 유	북송경험	외상경험
0~2	212 (34.4)	무	178(84.0)	102(48.1)
		유	10(4.7)	88(41.5)
		무응답	24(11.3)	22(10.4)
3~5	106 (17.2)	무	87(82.1)	46(43.4)
		유	9(8.5)	39(36.8)
		무응답	10(9.4)	21(19.8)
6~8	116 (18.9)	무	80(69.0)	44(37.9)
		유	23(19.8)	51(44.0)
		무응답	13(11.2)	21(18.1)
9~11	52 (8.5)	무	33(63.5)	18(34.6)
		유	17(32.7)	27(51.9)
		무응답	2(3.8)	7(13.5)
12년 이상	125 (20.3)	무	67(53.6)	31(24.8)
		유	50(40.0)	76(60.8)
		무응답	8(6.4)	18(14.4)
무응 답	4 (0.7)	-	-	-

측정도구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BPSINKR: 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

여 신현균, 임지영, 김희경(2009)이 개발한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개의 하위척도(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예민, 분노, 정신증)와 2개의 보충척도(가족 문제, 음주 문제)등 총 9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84문항이고, 3점척도(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외상 후 스트레스 .84, 불안 .84, 우울 .85, 신체화 .86, 대인예민 .87, 분노 .86, 정신증 .86, 가족문제 .88, 음주문제 .88, 그리고 총점은 .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탈북여성의 제 3국 체류 기간이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체류 기간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회복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국 체류 기간 중 북송 경험 유무가 심리증상 회복에 차이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제3국 체류기간과 북송 경험 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6.0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제 3국 체류기간에 따른 심리증상 차이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제 3국 체류 기간과 심리증상의

표3. 제3국 체류 기간에 따른 심리적 특성

	표준 오차	β	t	통계량	
제3국 체류 기간	PTSD	.226	.092	2.237*	R= .092 R ² = .008 수정된 R ² = .007 F= 5.005
	불안	.261	.029	.694	R= .029 R ² = .001 수정된 R ² = .000 F= .481
	우울	.221	.088	2.154*	R= .088 R ² = .008 수정된 R ² = .006 F= 4.641
	신체화	.242	.065	.1582	R= .065 R ² = .004 수정된 R ² = .003 F= 2.501
	대인예민	.237	.004	.106	R= .004 R ² = .000 수정된 R ² = -.002 F= .011
	분노	.212	.041	.997	R= .041 R ² = .002 수정된 R ² = .000 F= .993
	정신증	.213	.066	1.604	R= .066 R ² = .004 수정된 R ² = .003 F= 2.572
	가족문제	.257	.107	2.618**	R= .107 R ² = .012 수정된 R ² = .010 F= 6.852
	알콜문제	.215	.196	4.839***	R= .196 R ² = .038 수정된 R ² = .037 F=23.415

*p<.05, **p<.01, ***p<.001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제 3국의 체류기간은 외상후 스트레스(r=.092, p<.05), 우울(r=.109, p<.01), 가족문제(r=.101, p<.05), 음주 문제(r=.184, p<.001)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밖의 다른 심리 증상들은 제 3국 체류 기간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제 3국의 체류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가족문제, 음주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 3국 체류 기간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3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게 되는 기간은 외상후스트레스(t=2.237, p<.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도 제3국의 체류기간은 우울(t=2.154, p<.05), 가족문제(t=2.618, p<.01), 음주문제 (t=4.839, p<.001)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국 체류기간이 불안, 정신증, 신체화, 대인예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 체류기간 1년 미만집단과 7년 이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 비교

변인		사전	사후	t ₁	사전-사후	t ₂
1년 미만(n=153) / 7년 이상(n=201)						
PTSD	1년 미만	46.97(7.59)	43.12(6.40)	6.127***	3.857(6.87)	-1.321*
	7년 이상	49.71(8.71)	44.54(7.87)	7.135***	5.163(8.93)	
불안	1년 미만	48.15(8.96)	43.15(8.06)	6.485***	5.000(8.41)	-.023
	7년 이상	50.02(9.87)	44.99(9.10)	6.111***	5.026(10.17)	
우울	1년 미만	47.96(7.09)	42.28(5.15)	8.477***	5.479(7.05)	-1.316*
	7년 이상	50.75(8.97)	43.99(6.16)	9.801***	6.752(8.52)	
신체화	1년 미만	45.31(8.29)	43.13(7.39)	3.487**	2.177(6.81)	-1.779*
	7년 이상	47.95(8.89)	44.07(7.70)	5.629***	3.876(8.52)	
대인 예민	1년 미만	48.87(7.91)	43.38(7.45)	6.960***	5.496(8.61)	.012
	7년 이상	50.03(9.03)	44.55(8.28)	8.016***	5.484(8.46)	
분노	1년 미만	46.32(5.47)	44.82(5.37)	2.985**	3.168(8.14)	.165**
	7년 이상	47.97(7.75)	46.20(7.35)	2.726**	2.974(10.65)	
정신증	1년 미만	46.71(5.17)	44.84(4.75)	3.800***	1.874(5.38)	-1.433**
	7년 이상	49.36(9.03)	46.18(6.09)	4.513***	3.177(8.71)	
가족 문제	1년 미만	47.97(8.36)	45.15(9.12)	3.601***	2.824(8.55)	.443
	7년 이상	50.76(9.87)	48.42(9.31)	3.058**	2.333(9.44)	
알콜 문제	1년 미만	46.26(6.27)	45.04(3.54)	2.283*	1.219(5.82)	-1.968*
	7년 이상	49.73(9.51)	47.08(7.28)	5.460***	2.641(5.95)	

*p<.05, **p<.01, ***p<.001

제 3국 체류(단기-장기)와 심리증상 변화 비교

제 3국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7년 이상 소요된 집단으로 나누어 하나원에서 지내는 12주간 심리 증상의 변화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탈북자의 한국 입국 소요시간이 점차 짧아져, 탈북 후 1년 미만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장기 체류기간은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평균값을 구한 뒤, 1표준편차 위의 값을 구한 결과 약6년이었고, 집단

간 크기를 맞추기 위해 7년 이상을 장기 체류집단으로 정하고 분석하였다. 1년 미만 대상자는 184명, 7년 이상의 대상자는 230명이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자는 1년 미만으로 분석된 대상자는 153명, 7년 이상으로 분석된 대상자는 201명이었다. 표 3은 1년 미만 집단과 7년 이상 집단 각각의 입소 당시와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의 평균 비교 결과와(t₁), 각 두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차에 대한 평균 비교결과(t₂)를 보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하나원 입소 당시와 12주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시된 설문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

표5. 북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 비교

변인		사전	사후	t ₁	사전-사후	t ₂
		북송 유경험(n=77) / 북송 무경험(n=296)				
PTSD	유경험	49.62(8.38)	45.94(8.06)	3.793***	3.688	.954
	무경험	48.31(8.11)	43.65(7.21)	10.284***	4.659	
불안	유경험	49.09(9.38)	45.47(9.30)	3.277**	3.623	1.688
	무경험	49.89(9.72)	44.25(9.20)	10.488***	5.642	
우울	유경험	50.09(8.74)	44.29(6.55)	6.357***	5.805	.588
	무경험	49.81(8.46)	43.39(6.42)	13.38***	6.422	
신체화	유경험	48.22(8.10)	43.75(6.91)	5.198***	4.468	-2.161*
	무경험	46.18(8.64)	43.38(8.11)	5.230***	2.345	
대인 예민	유경험	50.19(9.49)	44.57(7.87)	5.824***	5.623	-.238
	무경험	49.81(8.56)	44.46(8.76)	10.349***	5.355	
분노	유경험	48.08(8.77)	47.01(8.99)	1.260	2.610	.424
	무경험	47.37(6.37)	45.24(6.15)	5.586***	3.122	
정신증	유경험	48.43(8.10)	45.92(5.35)	3.620**	2.507	-.341
	무경험	48.12(7.61)	45.93(6.22)	4.994	2.189	
가족 문제	유경험	50.43(10.00)	48.18(8.90)	2.370*	2.247	.193
	무경험	49.45(9.27)	46.97(9.26)	4.530***	2.473	
알콜 문제	유경험	49.40(10.62)	47.45(9.33)	2.985**	1.948	.213
	무경험	47.65(7.26)	45.54(4.33)	6.305***	2.105	

*p<.05, **p<.01, ***p<.001

아졌다.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에는 남한에 입국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을 출발한 집단에 비해 제 3국 체류 기간이 긴 집단이 BPSI-NKR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더 높아 비교적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후 이들이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하나원 수료 앞둔 시기에 실시된 설문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아져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이 12주동안 지내는 동안 BPSI-NKR의 하위변

인의 변화량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PTSD(t=-1.321, p<.05), 우울(t=-1.316, p<.05), 신체화(t=-1.779, p<.05), 분노(t=.165, p<.01), 정신증(t=-1.433, p<.01), 알콜문제(t=-1.96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밖에 불안, 대인예민,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송경험의 유무와 심리증상 변화 비교

대상자 중 복송 경험 여부에 따라 하나원에서 지내는 12주간 심리 증상의 변화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복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09명,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446명이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자는 각각 77명, 296명이었다. 표 5는 복송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집단 각각의 입소 당시와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의 평균 비교 결과와(t1), 각 두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차에 대한 평균 비교결과(t2)를 보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복송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모두 하나원 입소 당시와 12주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시된 설문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하나원 입소 당시 복송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복송을 경험한 집단이 BPSI-NKR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더 높아 비교적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후 이들이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하나원 수료를 앞둔 시기에 실시된 설문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아져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이 12주동안 지내는 동안 BPSI-NKR의 하위변인의 변화량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체화($t=-2.161, p<.05$)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밖에 PTSD, 우울, 불안, 대인예민, 분노, 정신증, 가족문제, 알콜문제 모든 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PTS, 불안, 우울, 분노, 가족문제, 알콜문제 요인의 경우 복송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12주의 시간동안 심리적 경향성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증상의 회복 정도에 따른 제3국의 체류 기간과 복송경험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참조). 탈북 후 입국 시점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복송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리적 회복되는데 있어 제 3국의 체류기간과는 상호작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평균을 비교하면 복송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회복 정도가 더 낮았다. 그런데 대체로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 정도가 높아졌는데, 불안, 우울, 가족문제의 경우 복송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장기 체류집단이 회복정도가 더 높았던 것과 달리, 복송을 경험한 집단은 체류기간이 길었던 집단이 오히려 회복 정도가 더 낮았다. 우울과 가족문제의 경우 체류기간이 복송을 경험한 집단은 체류기간이 짧았을때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어졌을 때 회복 정도가 더 낮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오기까지 제 3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PTSD, 우울, 음주문제, 가족문제를 느끼는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제 3국 체류 기간은 위 네가지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제 3국에 1년 미만 체류한 집단과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집단의 심리증상의 회복 정도를 알아본 결과 단기 집단, 장기 체류 집단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심리 증상의 변화를 보였다(표 4 참조). 그리고 두 집단간에 입소 당시 점수와 수료 직후의 점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PTSD,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알콜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1년 미만의 집단과 7년 이상 소요된 집단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의미한 수준을 보인 변인을 살펴봤을 때 회복하는 속도의 평균이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집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집단일수록 심리적 회복 속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

우 12주가 지난 뒤 모두 점수가 낮아져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데 호전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주 동안 변화의 차이를 비교했

을 때 체류기간과 복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우울, 불안, 가족문제는 상호작용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1, 2, 3 참조).

표6. 제 3국 체류기간과 복송 경험 여부에 따른 심리 증상 회복정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TS	체류기간	70.341	1	70.341	1.062
	복송경험여부	74.970	1	74.970	1.132
	체류기간*복송경험	6.289	1	6.289	.095
불안	체류기간	.493	1	.493	.005
	복송경험여부	39.896	1	39.896	.437
	체류기간*복송경험	15.345	1	15.345	.168
우울	체류기간	2.546	1	2.546	.039
	복송경험여부	1.071	1	1.071	.017
	체류기간*복송경험	35.910	1	35.910	.556
신체화	체류기간	32.364	1	32.364	.536
	복송경험여부	18.440	1	18.440	.305
	체류기간*복송경험	10.255	1	10.255	.170
대인예민	체류기간	10.653	1	10.653	.146
	복송경험여부	8.654	1	8.654	.119
	체류기간*복송경험	19.141	1	19.141	.262
분노	체류기간	.821	1	.821	.009
	복송경험여부	20.693	1	20.693	.218
	체류기간*복송경험	6.194	1	6.194	.065
정신증	체류기간	23.820	1	23.820	.417
	복송경험여부	3.948	1	3.948	.069
	체류기간*복송경험	3.111	1	3.111	.054
가족문제	체류기간	143.367	1	143.367	1.706
	복송경험여부	101.368	1	101.368	1.206
	체류기간*복송경험	116.425	1	116.425	1.385
알콜문제	체류기간	212.717	1	212.717	6.308*
	복송경험여부	130.424	1	130.424	3.867*
	체류기간*복송경험	83.011	1	83.011	2.462

*p<.05, **p<.01, ***p<.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을 분류하고, BPSI-NKR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오기까지 제 3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음주문제, 가족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체류 기간이 길수록 위 증상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들여오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들 중 상당수는 비교적 중국을 넘어오는 것이 용이한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강제 송환의 두려움과 생존 위협 등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통과 외상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제 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불편감은 더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노르웨이의 베트남 난민(Hauff & Vaglum, 1995), 미국의 동남아시아 난민(Carlson & Rosser-Hogan, 1991; Steel, Silove, Phan, & Bauman, 2002)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정착지 이전의 난민 캠프나 본국에서의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정착지에서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하였다. 즉 제 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하게 되어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도 45.9%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유정자, 2006) 이탈 주민들이 호소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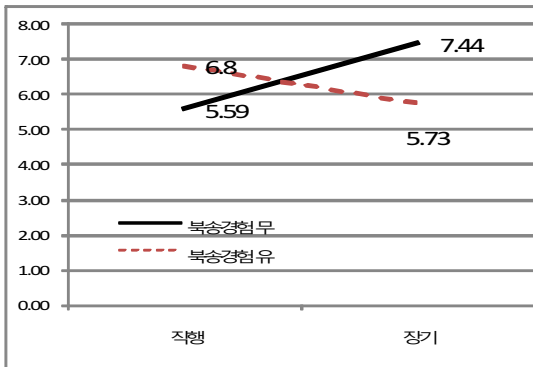


그림 1. 제3국 체류기간과 북송 여부에 따른 우울 회복 정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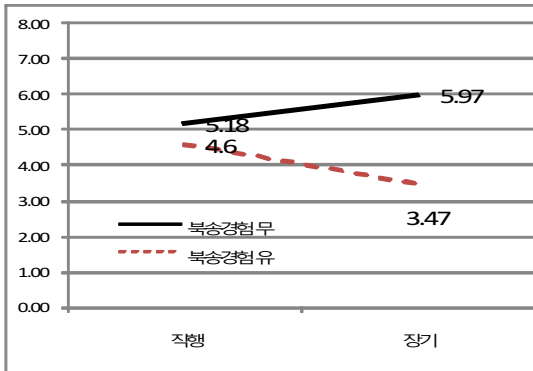


그림 2. 제3국 체류기간과 북송 여부에 따른 불안 회복 정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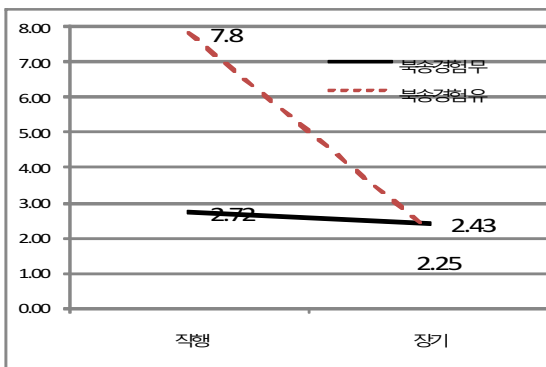


그림 3. 제3국 체류기간과 북송 여부에 따른 가족문제 회복 정도 평균 비교.

중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었다. 경제적 문제로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못하고, 자신의 한국 입국이 알려지면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리움은 이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고,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의 안내로 입국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져 한국에 1년만에 입국하게 되는 탈북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제 3국 체류기간이 짧은 비교적 단시간에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과 제 3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증상을 비교하기 위해 제 3국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 소요된 집단과 7년 이상 소요된 집단 두 집단을 선택하였다. 입소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는 7년 이상 소요된 집단이 모든 변인의 평균 점수가 높아 제 3국에서의 오랜 체류가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수료를 앞두고 실시된 검사에서 하나원 입소 당시 실시한 검사보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 그리고 입소 당시와 수료직후 변화량의 차이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PTSD,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알콜 문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기 집단과 장기 집단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었다. 음주문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것은 북한은 대부분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보니 여성이 음주 문화 경험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반면에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음주문화를 접하는 것이 더 용이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

애와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이 흔히 겪는 정신 장애로서,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에서도 우울 문제는 많이 거론되었고, 탈북 여성의 27.4%가 우울과 불안, 사회적 회피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다(김희경, 오수성, 2010)고 보고되고 있다. PTSD와 우울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점차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발행된 북한인권백서에서는 최근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체류하던 가족이 입국하는 계획 탈북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국내에 입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이들의 심리적 불편감은 오랜 시간 소요되었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그들이 외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추측하거나 고통의 경중을 더 따질 수는 없겠으나 제 3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국내 입국하게 되는 집단은 외상의 경험 및 심리적 고통이 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2주동안 하나원에서 지낸 후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봤을 때, 제 3국 단기 체류 집단과 장기 체류집단 사이에 PTSD,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알콜 문제의 변화량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분노는 단기체류집단이 장기체류집단에 비해 심리적 회복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감을 유지하였으나, PTSD, 우울, 신체화, 정신증, 알콜 문제의 경우에는 장기체류 집단이 그 회복 정도가 더 빨라 더 심리적 안정감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윤여상(2004)은 1990년대 중반이전 탈북자의 수가 소규모일 때 중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탈북을 암묵적으로 묵인하였으나 탈

북자 문제가 대규모화, 국제화, 인권문제화 되고 장기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들을 단속하고 강제송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가 지속되면서 기존에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탈북민들도 불안감을 경험하며 지냈겠지만 이후 탈북을 결심하고 단기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은 입국하기까지 극도의 긴장감을 느껴 입국 후에도 좀처럼 긴장감과 심리적 불편감이 완화되는 속도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 3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출발하여 단기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편감이 적었고, 이에 심리적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엄진섭, 전우택(2008)은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연구에서 과거에 경험한 누적된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화스트레스가 외상 후 성장에 방해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Kim(2012)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 중국, 남한의 시공간적 이주 과정에 따라 역경을 겪은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리 사회적 성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외상은 그 외상 자체가 성장의 원천이 아니라 역경과 투쟁하는 과정중에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치료적 요소의 중재를 통해 역경을 통한 성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이탈 여성은 누적되는 심리적 외상과 이주 후의 고통 이후에 긍정적 대처를 통해 외상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Bryant-Davis, 2005. 이숙영, 2014에서 재인용). 또한 김태국(2009)은 외상경험,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제 3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 조금은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자신만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인적 기능은 심리적 불편감을 안정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손의정(2010)의 연구에서 탈북 이후 기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0~2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후 완화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탈북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다가 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서의 불안정성, 신체화 등도 0~2년에 상승하였다가 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호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재중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정자(2006)의 연구에서는 중국 체류 기간이 3~5년 미만인 집단이 체류기간이 더 짧거나 5년 이상인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불편감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3~5년 미만 집단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유관한 내용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북송을 경험한 사람이 109명(17.7%), 북송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사람은 282명(45.9%)이었다. 본 연구에서 북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심리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체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밖에 다른 변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송을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 신체화정도가 12주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오히려 북송을 경험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정도가 더 커서 심리적 안정감 회복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승현(2013)의 연구에서 북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과 신체화 증상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로 보여진다. 탈북 후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하면서 인신매매, 북송 등 여러 외상을 경험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에 입국한 집단은 정신건강이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우울이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박철옥, 2007). 김현경(2007)의 연구에서 이탈주민들이 제 3국에 체류하면서 경험하였던 심리적 외상은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 경험하였던 외상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연합되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희경(2012)은 외상사건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 내용이 대인외상과 질병외상일 경우 비경험 집단에 비해서 복합 PTSD 및 PTSD 증상, 우울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탈북, 제 3국 체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외상 사건들 중에서 강제적이고 비인권적인 강제 북송은 교화소에서의 복무, 구타, 고문 등의 처벌 등 기간 및 내용에 있어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북송경험의 유무에 따라 PTSD의 증상에 차이가 예상된다. 또한 항상 공안에 체포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등은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북송 경험은 탈북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심리적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 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남한 문화지향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채정민, 2003). 채정민(200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면 북송 경험 유무가 큰 충격이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안정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중국에서 불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가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 남한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자신의 직업을 찾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불안한 상황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 뿐이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잘 살 수 있음을 경험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류기간에 따른 심리적 회복 정도에 북송 경험의 여부가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북송을 경험한 집단의 인원과 북송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인원의 차이가 커서 이를 비교하는데 북송의 경험 여부가 상호작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북한을 탈출하여 제 3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이탈주민의 심리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탈북자의 심리상태에 대해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탈북기간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심리적 불편감은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회복력은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단시간 내에 입국한 사람들과 제 3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생활하다가 입국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내용이 다르고 그 경험에서 느끼고 감내해야 했을 고통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장기간 체류하다가 입국한 사람들은 그 시간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어지는 안정감을 회복하는 속도에 단기간 체류자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단시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오는 여정이었기에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수준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 3국 장기체류자는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을 하다가 입국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체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외상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탈북 여성이 입국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그들이 입국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 단시간 내에 입국한 여성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지내면서 더 큰 외상을 경험하였거나,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었을 수 있고, 제 3국에서 생활 한 여성들 중에서는 깊은 시골에서 사회적 교류 없이 숨어살았거나, 시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여성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채정민(2003)은 연구에서 제 3국에 오래 체류했던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각종 정보와 남한 출신자들을 더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 적응에 더 수월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송 경험 여부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도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인원의 차이가 커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단체 생활 성향이 강하다보니 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집단의 역동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12주 짧은 기간동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며 이것이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확인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제 3국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따라, 교육 수준, 성별에 따라 제 3국 체류 기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들의 제3국 체류 기간이 남한 사회적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성록 (2000).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차연 (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61-80.
- 김순옥 (2010). 탈북자의 외상경험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검증: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8(4), 533-548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4), 149-180.
- 김영자 (2000).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제2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 김태국 (2009).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상후 성장과 문화적응. 대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 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1(12), 229-243.
-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경, 엄진섭, 전우택 (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사회복지 연구, 39, 29-56
- 김현아, 전명남 (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 2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

- 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문숙제,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박철옥 (2007).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옥 (2002). 중국내 탈북여성 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41-264.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의정 (2010).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리적 증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균, 임지영, 김희경 (2009).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매뉴얼. 통일부.
-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상 (2004). 재외탈북자 실태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제 7기 북한 인권 난민문제 아카데미 발표논문
- 이경희, 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숙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과 남한 내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 북한, 탈북과정, 남한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2014).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 중국 체류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아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상혁 (2002).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 (2005).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원선 (2006).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8-94.
- 채정민 (2003).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빛내, 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11, 78-94.
- 홍창형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rlson, E. B., & Rosser-Hogan, R. (1991). Trauma experiences, posttraumatic stress, dissociation, and depression in Cambodian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148(11), 1548-1551
- Carlson, E. B., & Rosser-Hogan, R. (1993). Mental Health status of Cambodian refugees ten years after leaving their homes. *Am Jorthopsychiat*, 63(2) pp.223-231
- Chung, R. C., & Kagawa-Singer, M. (199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5), 631-639.
- Hauff, E & Vaglum, P. (1995). Organized violence and the stress of exil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in a community cohort of vietnamese refugees three years after resettle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6, 360-367
- Hinton, W. L., Tiet, Q., Tran, C. G.,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 Kim, Hyun Kyoung. (2012). A Study on the Perceived Growth after Adversity among North Korean Women Refugee :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Method.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 Lee, Y., Lee, M. K, Chun, K. H, Lee, K. Y. & Yoon, J. S. (2001). Trauma 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3), 225-229.
- Silove, D., Sinnerbrink, I, Field, A., Manicavasagar, V., & Steel, Z. (1997). Anxiety, Depression and PTSD in Asylum-seekers; associations with pre-migration trauma and post-migration stresso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4), 351-357.
- Steel, Z., Silove, D., Phan, T., & Bauman, A., (2002). Long term effect of psychological trauma on the mental health of Vietnamese refugees resettled in Australia: a population-based study. *The Lancet*, 360(5), 1056-1062

Effects of the length of stay in transit country and forcible repatriation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resettled in South Korea: BPSI-NKR Analysis

Yu-Jin Jung

Bit-nae Choi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period of refugee experience both in the cours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during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has a direct effects on psychological symptom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The sample comprised female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commonly known as Hanawon and were stratified by the length of time in exile. We assessed the women's mental health status at two time points in their beginning of Hanawon program and right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using the 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 which is well developed and valid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at the length of time in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and psychological sympto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epression, alcohol problem and family issue. The comparison between short-term group that arrived in South Korea within one year (n=153) and long-term group that arrived in the South with more than 7 years in exile (n=2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degree of psychological improvement and stability on symptom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epression, somatization, anger, psychosis and alcohol problem.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symptoms of the long-term group is higher than that of the short-term group. The forcible repatriation experience back to North Korea affects significantly on somatization. However, the identity of the variables between forcible repatriation experience and the duration of refugee situation was not relevant, nor was any interaction.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ce in the point that the period of stay in transit countries affects psychological symptom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However, this study had some limitations which were not considered other risk factors such as occupation, residence area, personal experience in third countries within our findings.

keyword :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eriod of staying, trauma, repatriation to the North Korea, psychological symptoms, BPSI-NKR